

보험증권과 보험료

심 문 보
(한국위험관리(주) 사장)

일본에서는 “보험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현대인이라 한다”라는 보험 광고가 유행하고 있다.

마치 보험을 이용하지 않으면 현대인이 아닌 것처럼 다분히 위압감을 주는 말이라서 선뜻 수긍이 가지 않지만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들이 보험 없이는 곤란해져 ‘보험없이 기업 없다’(No insurance No business)라는 말도 쓰이게 된 요즈음이다.

위와 같이 현대인이라면 보험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때 꼭 알아두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상식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보험증권(保險證券)과 보험료(保險料)이다.

보험이란 학술적 배경을 가진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쓰이는 용어만도 수만가지에 이르러 세계 각국마다 두툼한 보험 용어 사전들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용어중에 유독 보험증권과 보험료가 보험 이용시에 기본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그 상품(有形)의 질과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보험에서는 보험증권이 상품(無形)이고 보험료가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보험의 어원(語源)

보험증권과 보험료는 모두 보험에 관한 것이니 보험의 어원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옛부터 중국에서 사용되어온 ‘保險’이라는 용어는 ‘險’에 ‘保’한다라고 읽어서 ‘保要’의 땅을 보존하는 일 또는 ‘要害’의 땅을 지키다’는 뜻을 나타내는 뜻이었다. 즉 3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魏志·鄭渾傳중에 ‘保險自守·比示弱也’라 하였고 당(唐)시대의 책인 劉元進傳에는 ‘其余堂, 往夕保險爲盜’라고 쓰여진 바와 같다.

우리 나라에서의 保險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에는 1853년 홍콩에서 서구 문물 소개지로 발간된 중국의 월간지 遐邇貫珍에 의해서 ‘保險’이라는 용어가 전해졌고 그 이전에는 ‘保險’이라고 썼다 한다.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우리가 보통 policy라고 부르는 보험증권의 어원은 이태리어인 polizza에서 왔다고 한다.

이 polizza란 말은 휘렌스사(史)의 편찬자로 저명한 베르키(Benedetto Varchi, 1503~1565)가 1537년경에 쓴 책속에서 ‘1530년의 휘렌스의 재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의 이익을 위

해서 복권이 설정되었으며…… 복권의 가격은 1다가이었다’라고 기술하였는데 여기에서 복권을 polizza라고 적었으며 이것이 현재 영어에서 보험증권을 말하는 policy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본래 이 말은 로마나 휘렌스의 도시에서 채무(債務)를 증거하는 서류(Writing), 각서(Memorandum), 계약서(contract) 또는 서식(Form)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 전화(轉化)해서 polissa라 불리게 되었고, 이로부터 영어의 policy가 생겨났다고 한다.

특히 Policy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London Chronicles가 초기의 보험증권을 ‘policy or Bill of Assurance in Lumbard Street in 1562’라고 기록한 데에서 16세기 중엽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宮脇 素作 續·保險見聞錄 參考)

한편 polizza라는 말의 어원을 ‘접은 서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polypticum 또는 이의 전용어 poliicum에서 구하는 설(說)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보험증권(Insurancepolicy)은 위에서와

같이 이재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保險金支給債務)를 증거하는 서류(Writing)로서 보험 계약 당사자(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권리의 의무 등 계약 조항을 정한 보험 약관 등의 서식(Form)과 각서(Memonandum)등 적지 않은 분량의 서류 즉 ‘접은 서류’(polizza)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 보험증권의 핵심을 이루는 보험 약관은 그 번잡하고도 어려운 난해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의 항의에 견디다 못한 프랑스의 보험 협회는 ‘그래도 혼인 계약서 보다는 쉽잖겠느냐’는 궁색한 변명을 했는가 하면, 보험 국가라는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보험 약관이 깨알 같은 글씨로 엄청난 내용을 적고 있다고 해서 ‘Big building, small print!’라고 비판되고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보험을 이용하는 사람을 사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 약관이 일반 계약서와 다를바 없어서 계약서로 오인될 수도 있으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의 서명없이 보험자가 작성, 발행하는 것임으로 계약서(contract)는 아니다.

또한 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쌍무유상계약증서(雙務有償契約證書)이지만 그렇다고 유가 증권(有價證券)은 되지 못하며 다만, 보험 계약을 증거하는 증서일 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험증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은 성립되나 보험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란 원

래가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또는 이재시 반드시 발생하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후 신속히 보험증권을 받아서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험을 이용하는 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최소한의 기초 상식이 아닐 수 없다.

“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 책임이 개시된다는 뜻에서 보험료 영수증을 ‘Cover Note’라고 하며, 보험증권 없이도 Cover Note만 가지고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보험증권보다는 보험료 영수증이 보험 계약자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

● 보험료(premium)

보험료는 보험 상품(보험증권)의 가격에 해당되며 통상 premium이라고 적는다.

당초(16세기 전반기)의 영국 보험증권에는 보험료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며, 그것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638년 이후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Premium이라는 말은 등장되지 않아서 ‘Price of Assurance’ 또는 스페인어의 ‘premio’라는 말이 대신 기록되었다.

그런데 보험료 개념의 독립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사이엔가

후자는 premio에서 유래된 premium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premio’의 어원이 라틴어의 ‘praemium’이다.

본래 이 ‘praemium’이라는 말에는 ‘최초에’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급(先給)’의 의미가 강한데에 착안해서 ‘미반테’(cesare Vivante, 1855~1944; 이태리 상법계의 대가)등 일부 학자들은 ‘premium’을 ‘선급’의 뜻으로 강조 해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premium이라는 말을 ‘保險料’로 번역한 것은 일본에서이고, 서구로부터 근대적 보험 제도를 도입한 중국에서는 처음부터 이를 ‘保險債’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는 현금으로 미리 갔다 내어야 한다는 뜻에서 ‘現金先納 持參債務’로 되어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약관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 책임이 개시된다는 뜻에서 보험료 영수증을 ‘Cover Note’라고 하며, 보험증권 없이도 Cover Note만 가지고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보험증권보다는 보험료 영수증이 보험 계약자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서두에서와 같이 ‘보험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현대인이라 한다’면 현대인이 보험을 이용함에 있어서 최소한 보험증권과 보험료는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